

한국 고활자명에 대한 연구*

- 임진왜란 이후의 목활자를 중심으로 (Ⅱ) -

A Study on the Names of Korean Old Movable Types

윤 상 기(Sang-Kee Yun)**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면서 | IV. 표준 활자명의 선정 |
| II. 활자별 연구 결과와 기존 활자명 | V. 나오면서 |
| III. 기존 활자명 분석 | |

초 록

이 연구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성된 목활자들 중 일부 활자의 기본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술은 먼저 대상 활자들에 대하여 각각의 간단한 내력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다. 이어서 각 문헌을 통하여 기존의 활자명들을 가능한 한 많이 조사하여 각 활자별로 나열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들을 분석하여 기존의 활자명들이 어떤 요소들을 선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선호도는 새로 발견된 활자에 대하여 명명하거나 기존의 활자에 대해 다시 명명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어서 필자 나름의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총 10종의 활자들에 대해 '文繼朴木活字', '羅州木活字', '前期校書館筆書體字', '仁祖實錄字', '孝宗實錄字', '後期校書館筆書體字', '觀象監 書名大字', '經書正音字', '倣洪武正韻大字', '剡溪門人錄大字'를 각각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하였다.

주제어 : 활자명, 한국 고활자.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everal basic wooden movable types molded in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e description begins with summarizing each basic history of movable types. The parts that have not been clearly defined are relatively dealt with in detail. Subsequently the existing movable types are examined as many as possible and arranged one by one.

And through analyzing the elements used in these movable type names, it is examined which elements were preferred by the existing movable type names. This preference could be helpful for naming the newly found types or renaming the existing types.

Next, each standard name of movable types has been selected in total 10 movable types with applying writer's own selection standard. Those are as follows:

'Moongyepak mokhwalja(文繼朴木活字)', 'Naju mokhwalja(羅州木活字)', 'Chunki kyosoekwan pilseocheja(前期校書館筆書體字)', 'Injosillokja(仁祖實錄字)', 'Hyojongsilokja(孝宗實錄字)', 'Huki kyosoekwan pilseocheja(後期校書館筆書體字)', 'Koansanggam seomyeong daeja(觀象監 書名大字)', 'Kyeongsejeongeumja(經書正音字)', 'Panghongmujeongwon daeja(倣洪武正韻大字)', 'Seomgaemuninlok daeja(剡溪門人錄大字)'.

Key words : movable types names, Korean old movable type.

* 본 논문은 2001학년도 동의대학교 자체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skyoon@hyomin.donggeui.ac.kr)
 • 접수일 : 2002. 8. 2 • 최초심사일 : 2002. 8. 27 • 최종심사일 : 2002. 8. 29

I. 들어가면서

이 논고는 서지학계에서 사계의 중지를 모아 한국의 모든 고활자에 대한 명칭을 통정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필자가 계획·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연구 중 한 부분이다. 이에 앞서 이루어진 임진왜란 이전의 금속활자명과 목활자명,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의 금속활자명과 일부의 목활자명에 대한 총 다섯 편의 연구 결과는 《東義論集》,¹⁾ 《書誌學研究》,²⁾ 《書誌學報》³⁾ 등에 각각 발표하였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필자는 이 연구가 독립적인 연구였다면 마땅히 이 글에서 기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상당 부분 생략하였다. 필자가 이미 앞서 발표한 논문들에서 기술한 내용들을 반복 기술하면서 아까운 지면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독자들에게는 다소 불편을 끼치게 되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을 안내함으로서 이런 미안한 마음을 다소나마 덜고자 한다.

이 일련의 연구의 의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논문의 ‘I. 들어가면서’⁴⁾를, 그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활자명의 명명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논문의 ‘II. 既存의 活字名 命名法’⁵⁾을 참고하고, 필자가 그동안 각 논고에서 제시한 활자명의 선정 기준과 명명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논문의 ‘V. 勸獎 命名法’⁶⁾ 두 번째 논문의 ‘V. 勸獎 選定 基準과 命名法’⁷⁾ 및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논문의 ‘5. 勸獎 選定 基準과 命名法’⁸⁾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 1) ①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 壬辰倭亂 以前の 金屬活字를 中心으로”, 《東義論集》 第24集(1996. 9), 人文·社會科學篇, pp. 201-255.
②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 壬辰倭亂 以前の 木活字를 中心으로”, 《東義論集》 第28集(1998. 2), 人文·社會科學篇, pp. 545-587.
 - 2) ①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 壬辰倭亂 以後의 金屬活字를 中心으로 (乾)”, 《書誌學研究》 第16輯(1998. 12), pp. 297-334.
②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 壬辰倭亂 以後의 木活字를 中心으로 (I)”, 《書誌學研究》 第19輯(2000. 6), pp. 101-129.
 - 3)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 壬辰倭亂 以後의 金屬活字를 中心으로 (坤)”, 《書誌學報》 第22號(1998. 12), pp. 89-122.
 - 4)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 壬辰倭亂 以前の 金屬活字를 中心으로”, 앞에서 든 글, pp. 201-203.
 - 5) 같은 글, pp. 203-206.
 - 6) 같은 글, pp. 247-250.
 - 7)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 壬辰倭亂 以前の 木活字를 中心으로”, 앞에서 든 글, pp. 580-582.
 - 8) ①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 壬辰倭亂 以後의 金屬活字를 中心으로 (乾)”, 앞에서 든 글, p. 333.
②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 壬辰倭亂 以後의 木活字를 中心으로 (I)”, 앞에서 든 글, pp. 128-129.

이번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성된 목활자들 중 앞서 발표한 9종의 목활자들에 이어 조성된 10종의 목활자들에 대하여 기본활자를 중심으로 표준 활자명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같은 기간에 조성된 한글활자나 크기에 따른 활자명, 계열활자명,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성된 활자들, 기타 아직 다루지 못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하면서 稿를 달리하여 발표할 작정이다.

이 논고에서 다룰 목활자들은 대체로 광해군 말기부터 정조 초기까지에 조성된 활자들이다. 이 시기는 전후의 혼란이 점차 수습되면서 안정을 되찾게 되는 시기로서 많은 활자들이 주·조성되어 서적의 인출에 이용되었다. 먼저, 금속활자로는 갑인자의 개주가 계속되어 戊申字, 壬辰字 및 丁酉字가 주성되면서 관청의 수많은 서적들을 인출하는데 이용되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洛東契라는 사사단체가 洛東契活字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후에 顯宗實錄字와 섞어 현종실록을 인출하는데도 사용된다. 일본어 학습 교재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伊呂波의 히라가나를 자본으로 丙辰倭諺大字라는 특이한 활자도 만들어졌다. 金錫胄(1634-1684)나 洪啓禧(1703-1771)와 같은 개인들이 사사로이 주조한 初鑄韓構字나 栗谷全書字도 있었으며, 최초의 철활자인 前期校書館印書體字와 그것을 다시 주조한 後期校書館印書體字도 校書館에 의해 주성되었다. 그 외에도 元宗字, 肅宗御筆大字, 內用三書字 같은 금속활자들이 주성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금속활자보다 더 많은 종류의 목활자들이 조성되었는데, 그들 중 비교적 자세히 알려진 것들은 이 논고에서 모두 다루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세하게 규명되지 않은 활자들도 많이 있으니, 성주에서 쓰여진 갑진자체의 목활자를 비롯하여 훈련도감에서 『儷文程選』을 찍은 갑진자체의 대형 활자, 『黃驪世葉』를 찍은 필서체의 작은 목활자, 雒東 紫芝洞에서 사용된 인서체의 활자, 바가지와 찰흙을 재료를 사용한 匏活字와 陶活字, 서울 竹洞에서 방목을 찍은 활자, 司譯院에서 사용한 戊辰倭諺大字, 榮州郡에서 『再造藩邦志』를 찍은 활자, 金慶禧(영조조)가 사주하여 족보를 찍은 철활자 등도 모두 이 시기에 주·조성된 활자들이다.

II. 활자별 연구 결과와 기존 활자명

연구의 대상이 되는 활자들을 연대순으로 다루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 알려진 사항들 중 기존의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들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특히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자세히 밝혀 부적합한 활자명을 골라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1. 文繼朴木活字

이 활자는 경상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와 순찰사인 鄭造(1559-1623)가 그의 친구 文繼朴(광해군조)을 시켜 만든 목활자로, 尹炳泰가 처음으로 발표하여 자세히 알려졌다.⁹⁾

활자의 조성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견해로는 尹炳泰가 “鄭造의 赴任時期인 光海君 12년 庚申(1620) 頃으로 생각된다”¹⁰⁾고 한 것과 千惠鳳이 “鄭造(1559-1623)가 光海君 13년(1621) 경상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와 순찰사로 부임하였을 때, 기왕에 활자 인쇄를 경험하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의 친구 文繼朴에게 활자를 새기는 일부터 교정·인쇄하는 일까지, 일체의 책임을 맡기고 책을 찍어내게 했다”¹¹⁾고 한 것이 있다. 즉 광해군 12년(1620)과 13년(1621)으로서 양자간에 1년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조성시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록들을 검토해보자. 우선 이 활자로 찍은 『虛庵遺藁』에 있는 鄭造의 발문을 보면,

… 영남에 부임하여 먼저 『世稿』를 인출하고 이어서 이 책을 인출한다. … 진사 文繼朴은 나의 옛 친구인데 일찍이 활자 다루는 방법을 잘 알아 刻字를 감독하고 인출을 가르치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감독했다. … 天啓 元年(광해군 13년(1621)) 2월 일에 가선대부 경상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인 鄭造가 삼가 발문을 짓다.¹²⁾

라고 되어 있다. 이 발문을 작성한 시기는 ‘天啓元年二月日’로서 광해군 13년(1621) 2월이다. 따라서 『虛庵遺藁』의 인출은 이 발문을 작성한 직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발문에는 이 책을 찍기 전에 먼저 世稿 즉 『首陽世稿』¹³⁾를 찍었다고 하였으므로, 이 활자의 조성은 분명 『首陽世稿』를 찍기 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文繼朴이 刻字를 감독한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먼저 찍은 인본으로 『首陽世稿』만을 들고 있고, 또 발견된 다른 인본도 없는 것으로 보아 『虛庵遺藁』 이전에 찍은 책은 『首陽世稿』뿐인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위의 두 책의 인출은 발문의 문맥으로 보나 鄭造의 관직으로 보나, 鄭造의 부임지인 嶺營에서 이루어졌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또한 두 책의 인출과 마찬가지로 활자의 조성도 嶺營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므로 빨라도 鄭造가 嶺營에 부임한 이후가 될 것이다. 그런데 鄭造가 嶺營에 부임한 때를 실록의 기사를 통해 추정해보면, 광해군

9) 이 활자가 처음 언급된 곳은 尹炳泰, “耶蘇三字經大字考”, 《도서관》 第29卷, 第10號(1974. 12), p. 29지만 여기에서는 활자명만 언급되었고, 자세한 연구는 尹炳泰, “「文繼朴 木活字」考: 嶺南地方活字考 其一”, 《圖書館學論集》 第4輯(1977), pp. 195-209로 발표되었다.

10) 尹炳泰, 『朝鮮後期の活字와冊』. 서울: 범우사, 1992. p. 64.

11) 千惠鳳, 『韓國書誌學』, 개정판. 서울: 민음사, 1997. p. 446.

12) ‘… 適按嶺南 先印世稿 繼印是書 … 進士 文繼朴 余舊知也 曾解活字之法 監刻校印 終始董役 … 天啓元年二月日嘉善大夫 慶尙道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鄭□謹跋’ 鄭希良(1469-?), 『虛庵遺藁』, 文繼朴木活字本, 3卷 1冊. [刊地未詳]: [慶尙監營?], [光海君 3年(1621) 跋](서울대 一簣文庫(一叢古 819.51-J463h-))의 鄭造의 跋文.

13)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六堂文庫(六古 D2-A38-2)에 4卷, 附, 合 2冊 중 뒤편인 卷之三과 四 그리고 附의 零本 1冊이 있다.

11년(1619) 5월 7일의 기사에 鄭造를 參知로 제수한 기록이 있으며,¹⁴⁾ 같은 해 10월 8일의 기사에서는 “경상감사 鄭造는 응당 포상으로 가자되어야 하니 이번 정사에서 가자하라”¹⁵⁾고 하여 鄭造가 경상도관찰사의 직에 있으면서 공궐을 신축하는 일에 원조한 공로로 가자되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鄭造의 부임시기는 그 사이가 될 것이다. 정리해보면, 鄭造가 광해군 11년(1619) 5월과 10월 사이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광해군 13년(1621) 2월 이후에 두 번째 인본인 『虛庵遺藁』를 찍은 것이 된다. 당연히 그 사이에 활자가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首陽世稿』의 인출까지 마쳤을 것이다. 이 기록만으로 조성년도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추정하건대 광해군 11년(1619)은 부임한 첫 해인지라 업무의 파악이라든가 활자 조성의 여건 마련과 완성까지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그 해에 완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고, 광해군 13년(1621)은 『虛庵遺藁』의 발문의 작성월이 2월이고 『虛庵遺藁』의 인출 이전에 2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首陽世稿』의 인출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또한 그 해에 활자의 조성까지 완료하였을 것이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조성년도는 광해군 12년(1620)일 것이라 짐작할 뿐이다.

자본을 알 수 없는 필서체의 활자로, 인본도 앞서 거론한 2종의 문집 외에는 더 이상 알려진 것이 없다.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으로는 ‘文繼朴木活字’,¹⁶⁾ ‘文繼朴字’,¹⁷⁾ ‘文繼朴活字’,¹⁸⁾ ‘嶺南監營 文繼朴字’ 등이 있다.

2. 羅州木活字

갑인자계 활자들의 자체를 닮은 필서체의 목활자로서 尹炳泰에 의해 처음으로 자세히 알려졌다.¹⁹⁾

현재까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인본인 『薛文清公讀書錄』의 권말에 ‘皇明天啓六年仲秋 羅州牧活字刊’이라는 인출기가 있어서 역시 유일한 단서가 되고 있다.

尹炳泰는 활자의 구성에 대하여, 인출기와 인본의 목흔에 근거하여 인조 4년(1626)경에 羅州牧에서 당시의 목사였던 柳汝恪이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⁰⁾

14) 『光海君日記』. 11년(1619) 5월 7일(己丑)조.

15) ‘慶尙監司鄭造 有應受賞加 今政加資’ 『光海君日記』. 11년(1619) 10월 8일(丁巳)조.

16) 尹炳泰, “耶蘇三字經大字考”, 앞에서 든 글 등 4종의 자료.

17) 천혜봉, 『한국목활자본』. 서울 : 범우사, 1993 등 3종의 자료.

18) 尹炳泰, 앞에서 든 책.

19) 尹炳泰, “羅州牧活字”攷, 《도서관》 第30卷, 第1號(1975. 1), pp. 59-67.

20) ① 같은 글.

② 尹炳泰, 앞에서 든 책. pp. 70-71.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으로는 ‘羅州牧木活字’,²¹⁾ ‘羅州牧字’,²²⁾ ‘羅州木活字’,²³⁾ ‘羅州牧活字’,²⁴⁾ ‘羅州字’²⁵⁾ 등이 있다.

3. 前期校書館筆書體字

임진왜란 이후 인조반정과 정묘·병자 양란을 거쳐 인조 말기에 이르러 비로소 나라의 인쇄업무가 옛날과 같이 다시 校書館으로 돌아왔다. 訓練都監에서 인쇄업무를 경험한 장인들이 校書館으로 옮겨와 업무를 재개한 것이다. 이 무렵부터 현종 9년(1668)에 戊申字가 주도되어 중앙관서의 금속활자 인쇄업무가 다시 수행되기까지의 사이에 校書館이 여러 가지 책을 찍어 공급하는데 사용한 중·소자의 목활자이다.

이 활자는 校書館에서 조성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언제 조성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다만 현전하는 인본들 중 인출년도가 분명하면서 가장 앞서는 것이 인조 21년(1643)에 인출한 『神應經』이므로, 이 무렵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활자체는 종래의 갑인자계와 을해자계의 상잡한 필서체를 답습, 잡다하게 제작되어 그 인쇄가 대체로 조잡하다. 그러나 이 활자는 校書館이 전란으로 중단된 인쇄업무를 다시 부활시켜 금속활자 인쇄가 실시되기까지 이어준 점에서 인쇄문화사상 의의가 큰 활자이다.²⁶⁾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으로는 ‘校書館木活字’,²⁷⁾ ‘校書館字’,²⁸⁾ ‘校書館筆書體字(Ⅰ)’,²⁹⁾ ‘亂後校書館字’, ‘芸閣鑄字’,³⁰⁾ ‘乙亥字體校書館木活字’,³¹⁾ ‘前期校書館筆書體字’,³²⁾ ‘筆書體校書館木活字’,³³⁾ ‘行書體木活字’³⁴⁾ 등이 있다.

21) 尹炳泰, “耶蘇三字經大字考”, 앞에서 든 글.

22) 尹炳泰, “羅州牧活字攷”, 앞에서 든 글.

23) 같은 글 등 2종의 자료.

24) 같은 글.

25) 같은 글 등 3종의 자료.

26) 千惠鳳, 『韓國書誌學』, 개정판, 앞에서 든 책. pp. 450-451.

27) 金秀亨, “訓練都監字本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科, 1978. 12 등 8종의 자료.

28)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 汎友社, 1990.

29) 천혜봉, 『한국목활자본』, 앞에서 든 책.

30) 崔恒 等受命編, 『經國大典』, 前期校書館筆書體字本. 芸閣, 顯宗 2년(1661). 刊記 등 2종의 자료.

31) 金秀亨, 앞에서 든 글.

32) 千惠鳳, 『韓國書誌學』, 개정판, 앞에서 든 책.

33) 金秀亨, 앞에서 든 글.

34) 金斗鍾, “李氏朝鮮의 後期活字의 改鑄와 潛谷, 金增先生三代(子에 佐明 孫에 錫胄)의 貢獻”, <庸齋白樂濬博士還甲紀念 國學論叢>. [서울] : 思想界社, 1955. pp. 143-170 등 8종의 자료.

4. 仁祖實錄字

『仁祖實錄』은 효종 즉위년(1650) 8월 1일부터 동왕 3년(1652) 2월까지 1년 7개월에 걸쳐 편찬을 끝마치고, 이어서 2월 20일에 印役に 착수하여 그 다음해인 동왕 4년(1653) 6월 28일에 완성되었다.³⁵⁾ 이 『仁祖實錄』을 찍기 위하여 황양목을 여러 도에서 많이 가져오게 하고 또한 각수들도 여러 곳에서 많이 징용하여³⁶⁾ 만든 목활자인데, 校書館에 두었던 종래의 목활자와 혼용하여 『仁祖實錄』을 찍었다.

이 활자는 宣祖實錄字보다 약간 크고 庚午字의 필의를 지닌 글자체인 점에서 宣祖實錄字와 구별이 된다.³⁷⁾

이 활자로는 『仁祖實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책을 찍었다.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은 ‘實錄字’³⁸⁾와 ‘仁祖實錄字’³⁹⁾ 뿐이다.

5. 孝宗實錄字

『孝宗實錄』은 현종 원년(1659) 5월 5일부터 다음해인 동왕 1년(1660) 7월까지 1년 3개월에 걸쳐서 편찬을 끝마치고, 이어서 같은 해 8월초에 印役に 착수하여 동왕 2년(1661) 2월초에 완성되었다.⁴⁰⁾ 이 『孝宗實錄』을 찍기 위하여 『仁祖實錄』을 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황양목을 여러 도에서 많이 가져오게 하고⁴¹⁾ 또한 각수들도 여러 도에서 징용하여⁴²⁾ 만든 목활자이다.

仁祖實錄字에 비해 크기가 작고 글자체가 해정하며 판식이 훨씬 정돈되어 있는데, 『孝宗實錄』 외에는 아직까지 발견된 인본이 없다.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으로는 ‘實錄字’⁴³⁾와 ‘孝宗實錄字’⁴⁴⁾ 뿐이다.

35)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順治14년癸巳 6월 일조 참조.

36) 같은 책. 順治10년癸巳·辛卯·壬辰 印出諸具條 참조.

37) 千惠鳳, 『韓國 書誌學』, 개정판, 앞에서 든 책. p. 438.

38) 『淸州古印刷博物館』, 충북: 忠淸北道, 1991.

39) 金元龍, “李朝後期の鑄字印刷”, 《郷土 서울》 第7號(1959. 12), pp. 7-66 등 19종의 자료.

40)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順治18년辛丑 정월 29일조 참조.

41) 같은 책. 順治17년庚子 6월 11일조 참조.

42) 같은 책. 順治17년庚子 7월 19일조 참조.

43) 『淸州古印刷博物館』, 앞에서 든 책.

44) 金元龍, 앞에서 든 글 등 19종의 자료.

6. 後期校書館筆書體字

숙종 14년(1688)에 南龍翼(1628-1692)이 엮은 『箕雅』⁴⁵⁾를 인출할 때 사용한 中·小字의 활자이다.

앞서 조성한 前期校書館印書體字와 비교해 보면, 우선 글자체에서 큰 차이를 보여준다. 前期校書館印書體字가 갑인자계와 을해자계의 상잡한 필서체라면 이 활자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작고 해정한 필서체다.⁴⁶⁾ 그리고 활자의 크기에서도 차이를 보여 前期校書館印書體字에 비해 높기와 폭이 더 작다.

이 활자의 재료나 구성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의 부족으로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재료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목활자설을 따르고 있지만, 南龍翼이 그의 문집인 『壺谷集』에서 ‘芸閣鑄字’라 한 것에⁴⁷⁾ 근거한 금속활자설, 근래에 제기된 도활자설⁴⁸⁾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새로운 자료의 출현을 기다려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고증되기를 기대하며, 우선은 종래의 설인 목활자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논고에서 다룬다.

이 활자는 앞서 거론한 『箕雅』에 편자인 南龍翼이 自序에서 ‘芸閣活字’라 한 것과, 또 그의 문집인 『壺谷集』에서 ‘芸閣鑄字’라 한 것, 『壺谷漫筆』에 나타나는 “芸閣提調를 겸했을 때 처음으로 활자를 얻어 印刷刊布하려 했더니, 이것을 들은 자들이 모여들어 자기네 선조의 문장을 수록하여 달라고 덤벼들었다”⁴⁹⁾고 한 것 등을 종합해 보면 校書館에서 소유한 활자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활자의 인본으로 알려진 서적들 중 인출년대가 분명하면서도 가장 빠른 것이 『箕雅』이고 이 책의 인쇄상태가 초기인본의 인상을 주므로, 이 활자의 조성도 대체로 『箕雅』를 인출한 숙종 14년(1688) 무렵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본으로는 『箕雅』를 비롯하여 여러 종의 시문집류의 책들이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으로는 ‘校書館鑄字’⁵⁰⁾ ‘校書館筆書體木活字’⁵¹⁾ ‘校書館筆書體字’⁵²⁾ ‘校書館筆書體字(Ⅱ)’⁵³⁾ ‘芸閣나무字’⁵⁴⁾ ‘芸閣

45) 南龍翼 編, 『箕雅』, 後期校書館筆書體字本. 肅宗 14년(1688)(서울대학교 규장각 (古)3441-23).

46) 千惠鳳, 『韓國 書誌學』, 개정판, 앞에서 든 책. p. 456.

47) 上白 孤雲 下逮今時 摠若干卷名之曰箕雅蓋以東方詩雅 由箕而作也 ... 又得芸閣鑄字始用印刷 而壽其傳 它曰 ...’ 南龍翼, 『壺谷集』(서울대학교 규장각 (奎)5753, 7119, (一叢)古819-53-N15h-v.1-9). 卷15, 第24張, 戊子除夕漫記條.

48) 손보기, 『새판 한국의 고활자』. 서울 : 寶晉齋, 1982. p. 105.

49) 兼芸閣提調 始得活字 將謀印布 聞者坌集 爭求其先世之載名其中 ...’ 南龍翼, 『壺谷漫筆』. 前間恭作, 『古鮮冊譜』 所引.

50) 千惠鳳, 『韓國 書誌學』. 서울 : 민음사, 1991(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 58).

51) 千惠鳳, 『韓國書誌學研究 : 古山千惠鳳教授定年紀念選集』. 서울 : 삼성출판사, 1991.

52) 金斗鍾, “近世朝鮮後期活字印本에 關한 綜合的考察”, 《大東文化研究》 第4輯(1967. 7), pp. 1-74 등 6

字',⁵⁵⁾ '芸閣鑄字',⁵⁶⁾ '芸閣 활흥字',⁵⁷⁾ '芸閣筆書字',⁵⁸⁾ '芸閣筆書體字',⁵⁹⁾ '芸閣活字',⁶⁰⁾ '芸閣
흥活字',⁶¹⁾ '筆書體木活字',⁶²⁾ '筆書體字',⁶³⁾ '後期校書館筆書體字'⁶⁴⁾ 등이 있다.

7. 觀象監 書名大字

觀象監에서 인출한 『儀象志』와 『交食曆指』의 표제지명을 찍는데 사용한 대형 목활자로 尹炳泰가 찾아냈다.⁶⁵⁾

현재까지 알려진 이 활자의 사용은 숙종 40년(1714) 5월 무렵에 찍은 것으로 추정되
는⁶⁶⁾ 『儀象志』⁶⁷⁾의 표제지명인 '儀象志' 3자와 영조 원년(1725) 7월 무렵에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⁶⁸⁾ 『交食曆指』⁶⁹⁾의 표제지명인 '西洋新法曆書' 6자의 인쇄뿐이다.

자료의 부족으로 이 활자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지만, 활자의 조성시기는 『儀象
志』를 인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숙종 40년(1714) 5월 이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은 '觀象監 書名大
字'⁷⁰⁾뿐이다.

8. 經書正音字

영조 10년(1734)에 李聖彬(영조조) 등의 역관이 司譯院에서 사서삼경의 역학서 원문에

종의 자료.

- 53) 천혜봉, 『한국목활자본』, 앞에서 든 책.
- 54)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교양 국사 총서·21) 등 3종의 자료.
- 55) 같은 책.
- 56) 南龍翼, 『壺谷集』 등 2종의 자료.
- 57) 손보기, 『새판 한국의 고활자』, 앞에서 든 책.
- 58) 金元龍, 앞에서 든 글 등 4종의 자료.
- 59) 같은 글 등 13종의 자료.
- 60) 南龍翼, 『箕雅』. 自序.
- 61) 손보기, 『새판 한국의 고활자』, 앞에서 든 책.
- 62) 金錫淳, 『韓國의 古活字와 그 印本』, 《건대신문》 第183號(1964. 9. 18(金)), p. 2 등 2종의 자료.
- 63) 金元龍, 앞에서 든 글.
- 64) 千惠鳳, 『韓國 書誌學』, 개정판, 앞에서 든 책.
- 65) 尹炳泰, 『朝鮮朝 大型活字考』,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科, 1975. 12. pp. 115-116.
- 66) '...儀象志及圖成...觀象監 刊志以進 書凡十三冊 圖二冊亦依唐本模出焉' 『肅宗實錄』. 40. p. 547 上右. 肅宗 40년甲午(1714) 5월 3일(癸卯)조.
- 67) 南懷仁(淸), 『儀象志』, 7卷 7冊. 木活字本(서울대학교 규장각 (奎)2147).
- 68) 觀象監啓言 本監 ... 方書未備 ... 交食曆指 七冊 ... 極爲緊要及時刊布 上可之' 『英祖實錄』. 41. p. 536 上左, 英宗 元年乙巳(1725) 7월 12일(丁未)조.
- 69) 湯若望(獨), 『交食曆指』, 7卷 7冊. 木活字本(서울대학교 규장각 (奎)2041).
- 70) 尹炳泰, 앞에서 든 책.

대한 중국의 바른 음을 한글로 표기하여 찍고자 스스로 경비를 거두어 한자와 한글의 목활자를 만들었다. 이 활자는 尹炳泰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⁷¹⁾ 그 중 원문 한자를 찍기 위해 만든 해정한 필서체의 한자 목활자를 일컫는다.

인본으로는 사서삼경의 역학서 외에는 전해지는 것이 없다.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으로는 ‘經書正音木活字’⁷²⁾와 ‘經書正音字’⁷³⁾가 있다.

9. 倣洪武正韻大字

白麟이 처음으로 찾아내 발표한 활자이다.⁷⁴⁾

정조가 동궁으로 있을 때 명나라 成化 12년(1476)에 편찬한 『資治通鑑綱目續編』⁷⁵⁾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을 추진하였다. 그러면서 綱에 해당하는 본문의 큰 자를 찍기 위해 洪武正韻字를 본떠 그 글자 획을 크게 써서 목활자를 새기게 하였다.⁷⁶⁾ 그러나 『資治通鑑綱目續編』의 오류 정정은 27권이나 되는 그 방대한 권질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렸고, 그런 사이에 명찬서의 사업으로 착수한 『易學啓蒙要解』와 『易學啓蒙集箋』이 영조 48년(1772)에 완성되니, 이미 준비된 綱의 큰 활자 중에서 필요한 활자를 가려 두 책에 같이 들어간 ‘御製易學啓蒙要解序’와 ‘易學啓蒙序’를 먼저 찍었다. 이어 『資治通鑑綱目續編』의 新訂이 영조 49년(1773)에 마무리되니 어제서와 綱의 본문은 이 활자로 찍고 목의 주석은 壬辰字로 찍어 펴냈다.⁷⁷⁾ 이외에도 정조 23년(1797)에 인출한 『雅誦』의 서문인 ‘御製雅誦序’를 찍을 때도 이 활자가 사용되었다.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으로는 ‘綱目大字’⁷⁸⁾ ‘倣洪武正韻大字’⁷⁹⁾ ‘倣洪武正韻字’⁸⁰⁾ ‘壬辰序文大字’⁸¹⁾ ‘通鑑續編綱字’⁸²⁾ ‘通鑑續篇大字’

71) 尹炳泰, 經書正音字攷, <도협월보> 15, no. 11(1974. 11), pp. 20-24.

72) 安美環, 朝鮮朝 譯學書의 版種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5·6合輯(1990), pp. 603-634.

73) 尹炳泰, 經書正音字攷, 앞에서 든 글 등 8종의 자료.

74) 白麟, 朝鮮後期 活字本의 形態書誌學的 研究(下): 宣祖25~隆熙4년 사이의 奎章閣所藏圖書를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4號(1969. 6), pp. 146-147. ‘21. 綱目大字’.

75) 商輅(明) 等受命編, 『資治通鑑綱目續編』, 壬辰字本(서울대학교 규장각 (古)4362-2).

76) …余(世孫)其與有幸乎 遂使諸僚廣蒐房引 勘訂訛謬 每一編奏 余復取以裁定 凡例則悉遵訓義 事實則溯考本史 閱屢月始完 乃倣洪武正韻字 大其劃 印其綱 而目則壬辰銅字印行 奎章閣 編, 『羣書標記』, 御定 1. 資治通鑑綱目續編親撰義例.

77) ① 尹炳泰, “奎章閣圖書와 韓國活字印刷史 研究: 그 研究史와 史料를 中心으로”, <奎章閣> 1(1976. 11), p. 84.

② 千惠鳳, 『韓國 書誌學』, 개정판, 앞에서 든 책, pp. 462-463.

78) 白麟, 朝鮮後期 活字本의 形態書誌學的 研究(下): 宣祖25~隆熙4년 사이의 奎章閣所藏圖書를 中心으로, 앞에서 든 글 등 4종의 자료.

79) 千惠鳳, 『韓國古印刷史』, [서울]: 韓國圖書館學研究會, 1976 등 7종의 자료.

80) 千惠鳳, 『韓國 書誌學』, 앞에서 든 책 등 3종의 자료.

‘洪武正韻大字’⁸³⁾ ‘洪武正韻字’, ‘洪武正韻體 나무字’⁸⁴⁾ ‘洪武正韻體字’⁸⁵⁾ 등이 있다.

10. 剡溪門人錄大字

이 활자는 尹炳泰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⁸⁶⁾

정조 2년(1778) 5월에 청주지방에서 『剡溪李先生門人錄』⁸⁷⁾을 활자로 인출할 때 서명 1항과 상단의 인명 각 3자에 사용한 대형의 목활자이다. 함께 사용한 중·소자는 약간 뽀족한 인서체의 목활자이며 아직 규명되지 않은 활자이다.

尹炳泰는 이 활자를 정조 2년(1778)경에 淸州에서 민간인이 만든 連字 목활자로 추정하고 있다.⁸⁸⁾

이 활자의 인본은 『剡溪李先生門人錄』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은 ‘剡溪門人錄大字’⁸⁹⁾ 뿐이다.

III. 기존 활자명 분석

II.에서 표준 활자명의 선정 대상으로 삼은 활자는 모두 10종이다. 이들 활자들 중 대부분은 이미 많은 異名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명칭들은 다양한 요소들을 이용하여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우선 기존 활자명들에 이용된 다양한 요소들이 각 활자별로 지금까지의 연구로 얼마나 밝혀졌는지를 살펴보자. 그것을 분석한 것이 <표 1>이다.

81) 尹炳泰, “朝鮮朝 大型活字考”, 앞에서 든 글 등 9종의 자료.

82)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앞에서 든 책.

83) 『淸州古印刷博物館』, 앞에서 든 책.

84)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 앞에서 든 책.

85) 손보기, 『새판 한국의 고활자』, 앞에서 든 책.

86) 尹炳泰, “朝鮮朝 大型活字考”, 앞에서 든 글, pp. 107-110.

87) 『剡溪李先生門人錄』, 목활자본(국립중앙도서관 (古朝 57-7 851)).

88) 尹炳泰, 앞에서 든 책, p. 289.

89) 尹炳泰, “朝鮮朝 大型活字考”, 앞에서 든 글 등 2종의 자료.

〈표 1〉 기존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들 중 밝혀진 사항들

활자	요소	계열 활자	구성				자본: 활자	(주) 사용처	계
			시기(대략)	조성자	조성처	목적			
文繼朴木活字			○	○	○	○		○	5
羅州木活字			○	○	○			○	4
前期校書館筆書體字		○	○	○	○	○	○	○	7
仁祖實錄字		○	○	○	○			○	6
孝宗實錄字		○	○	○	○			○	6
後期校書館筆書體字		○	○	○	○			○	5
觀象監 書名大字			○	○	○	○		○	5
經書正音字			○	○	○	○		○	5
倣洪武正韻大字		○	○	○	○	○	○	○	7
剡溪門人錄大字			○		○			○	3
계		5	10	9	10	7	2	10	53

〈표 1〉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요소에 설명을 덧붙이면, ‘계열활자’는 활자들 간에 어떤 공통성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공통성을 지닌 활자들을 묶어서 다룰 수 있는 활자들을 말한다. 그러나 ‘목활자’와 같이 재료가, ‘亂後’와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시기가, ‘필서체’와 같은 字體가, ‘대자’와 같이 크기가 같은 활자들을 묶은 群은 계열활자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

‘구성 시기’는 기록에 의거하여 분명하게 조성년도가 밝혀진 활자는 없고 대략적인 조성년도가 추정되는 경우뿐이다. 즉, 초인본 또는 인본의 인출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으로 막연히 추측하거나 2년 이상의 연도에 걸쳐져서 어느 한 연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구성자’는 구성의 주체가 된 사람이나 기관이 누구인지가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구성처’는 구성된 지역, 기관, 장소 중 어느 하나라도 알려진 경우를 말한다.

‘자본 : 활자’는 자본이 된 활자나 자본이 된 인본을 찍은 활자를 말한다.

활자를 만든 ‘재료’는 명명에 많이 이용되는 요소이지만, 이 논고가 목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표에 나타낼 필요가 없어 생략하였다. 활자의 서체나 크기 역시 명명의 요소로 이용되었지만, 인본이 전해지기만 하면 글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표에서는 생략하였다. 그리고 인본의 종류나 인본의 서명도 역시 활자명의 요소로 사용되었지만, 이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각 활자의 인본 목록들을 보면 저절로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마찬가지로 표에서는 생략하였다.

오른쪽의 집계를 통해서 각 활자들에 관한 요소들이 어느 정도 밝혀졌는지를 알 수 있고, 아래쪽의 집계를 통해서 전체 활자들에 대하여 어떤 요소들이 많이 밝혀졌는지를 알 수 있다. 다만 요소들 중에는 일부 활자에만 해당되는 것도 있으므로 판단할 때는 반

드시 그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2>는 기존의 활자명들이 어떤 요소를 얼마만큼 이용하였는가를 분석한 표이다.

<표 2> 기존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들의 이용 횟수

요소 활자	계열 활자 명	구성					재 료	자본		서 체	크 기	(주) 사용 처	인본		계	기존 활자 명수	
		시기 (대략)	조 성 자	조 성 처	목 적	순 서		인 본	모방활자				종 류	서 명			
									표시: '體'								행위: '倣'
文繼朴木活字			4	1			1				1			7	4		
羅州木活字			3	5			2				5			15	5		
前期校書館筆書體字	2	2	8	8		1	5	1		4	8			39	9		
仁祖實錄字	1				1									2	2		
孝宗實錄字	1				1									2	2		
後期校書館筆書體字	2	1	13	13		1	7			8	13			58	15		
觀象監 書名大字			1	1	1					1	1			5	1		
經書正音字					2		1					2		5	2		
倣洪武正韻大字	1				3		1	6	2	2	5		3	23	10		
刻溪門人錄大字					1					1				2	1		
계	7	71					17	11		12	7	28	5		158	51	
		3	29	28	9	2		6	5				2	3			
									3								2

<표 2>에서 기존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를 분류한 것과 관련하여 몇몇 경우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어떤 것은 실제 적용된 경우가 여러 활자에 걸쳐 있지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는 하나씩만 들었으므로 같은 경우이면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羅州木活字의 여러 명칭들에서 사용된 '羅州牧'처럼 그것이 조성자, 조성처 및 (주) 사용처 중 어느 한 요소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 요소들을 모두 포함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명명할 때 어느 요소를 채택했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이상 해당되는 모든 요소에 다 분류하였다.

교서관필서체자계 활자들의 명칭에서 사용된 '校書館筆書體字'들 중 다른 요소들과 합성하여 사용된 것은 계열활자명인 동시에 조성자, 조성처 및 (주) 사용처를 내포하고 있기도 한다. 이처럼 명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여러 가지 요소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도 명명할 때 어느 요소를 채택했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이상 해당되는 모든 요소에 다 분류하였다.

'仁祖實錄字'에서 사용된 '仁祖實錄'처럼 조성의 목적이 어떤 인본을 인출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조성 목적을 명명의 요소로 이용할 때 대개 인본의 서명을 택한다. 또한 조성의 목적이 된 인본이 초인본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조성의 목적과 인본이 중복될 경우에는 조성 목적에 분류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0종의 활자에 대하여 지금까지 쓰인 적이 있는 활자 명 수는 모두 51개이다. 한 활자에 대하여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15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평균 약 5개의 활자명이 사용된 셈이 된다. 그리고 이 51개의 활자명은 15종의 요소 중 1-3개의 요소를 단독으로 혹은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29번 쓰인 요소부터 2번 쓰인 요소까지 활자에 관하여 밝혀진 사항이나 명명자나 사용자의 선호도와 판단 등에 따라 이들 요소를 선택하여 활자명에 이용한 것이다.

<표 2>를 이용해 활자에 상관없이 기존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들을 이용률 순으로 다시 정렬해보면 <표 3>과 같이 된다.

<표 3> 이용률 순으로 본 기존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들

구분 \ 요소	조 성 처	(주) 사용 처	계열 활자 명	자본: 인본	모방 표시: '體'	순 서	목 적	재 료	조 성 자	모방 행위: '倣'	크 기	서 체	조성 시기 (대략)	인본: 서명	인본: 종류	계· (평균)
밝혀진 활자 종수(A)	5	5	5	1	2	2	7	10	9	2	10	10	10	10	10	98
이용 활자 종수(B)	5	5	5	1	2	2	6	6	5	1	3	2	2	1	1	47
이용률(B/A(%))	100	100	100	100	100	100	86	60	56	50	30	20	20	10	10	(63)
총 이용 횟수	28	28	7	6	3	2	9	17	29	2	7	12	3	3	2	158

<표 3>에서 '밝혀진 활자 종수'는 연구를 통하여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가 밝혀진 활자의 종수를 의미한다. '이용 활자 종수'는 요소가 기존의 해당 활자명들에서 한 번 이상 이용된 적이 있는 활자의 종수를 의미한다. '이용률'의 마지막에 기록한 평균 이용률은 15종의 요소들의 이용률을 모두 더한 후 요소들의 종수인 15로 나눈 수치이다. '총 이용 횟수'는 전체 기존 활자명에서 이용된 횟수를 의미한다.

이 분석은 임진왜란 이후의 목활자들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의 고활자 전체에 대한 분석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후자의 분석은 후속 연구들이 완성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활자명에 이용되는 요소는 시기, 재료, 문자, 크기 등에 따라 독특한 경향이 있다. 즉 임진왜란 이전의 금속활자인 경우에는 당시에 간지를 이용한 활자명을 주로 사용하였다거나, 동 이외의 재료로 만든 활자의 경우에는 활자명에 재료명을 넣는 경우가 많다거나, 한자 이외의 문자로 된 활자의 경우에는 문자명을 포함시킨다거나, 중자 이외의 크기의 활자만 만든 경우에는 크기를 포함시켰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경향들을 무시하고 전체 고활자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모든 종류의 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시킨다면 다소 무리가 따르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적인 분석도 나름대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표 3>에 대한 부연 설명에 앞서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 그것은 활자에 대한 명명이나 활자명의 사용 시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는 근본적으로 연구를 통해 검토가 된

요소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활자에 대한 조성 당시의 자세하고도 정확한 기록이 일찍부터 발견되어 전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활자들은 그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후대의 연구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밝혀지며, 때로는 연구 결과가 오류로 판명되어 수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각 요소들의 이용률은 그 요소가 얼마나 일찍 발견되었거나 검토되었는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 3>을 살펴보면, 이용률이 100%인 요소는 ‘조성처’, ‘(주) 사용처’, ‘계열활자명’, ‘자본이 된 인본’, ‘모방표시인 ‘體’자’ 및 ‘조성 순서’의 여섯 종류임을 알 수 있다. 이 요소들은 밝혀지기만 했다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명명에 이용될 만큼 선호도가 높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들 중 ‘조성처’, ‘(주) 사용처’ 및 ‘계열활자명’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앞서 거론했듯이, 계열활자명인 동시에 조성자, 조성처 및 (주) 사용처를 내포하고 있으면서 어느 요소를 채택했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모든 요소에 다 분류한 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조성처’가 많이 이용된 것은 그 요소 자체가 활자의 내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계열활자명’이 많이 이용된 이유는 앞서 발표한 논고들에서도 밝혔듯이⁹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같은 계열에 속하는 활자들이 후대의 연구에 의하여 분명하게 계열활자들로 구분되기 전에는 모두 동일한 명칭으로 불리어졌으며, 그 활자명들이 곧 계열활자명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같은 계열이 아닌 다른 활자들과 구분할 때는 단순히 계열활자명만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계열활자명을 활자명의 요소에 포함시키면 같은 요소를 지닌 활자들의 동질성을 강하게 인식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소속 활자들의 동질성이나 활자명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넷째는, 후대로 올수록 계열 활자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자본이 된 인본’과 ‘모방표시인 ‘體’자’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이 논고에서는 앞의 두 요소들이 밝혀진 활자의 종수가 워낙 적어서 나타난 이용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울지 모르나, 지금까지 필자가 발표한 선행연구들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일관성 있게 명명자나 사용자가 선호하는 요소들이 분명하다.

그리고 ‘조성 순서’는 계열 활자들 중에서 개개의 활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즐겨 사용되었던 요소이다. 앞서 밝혔듯이 계열활자명의 이용률이 극히 높은 만큼 그것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조성 순서가 많이 이용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된 것은 ‘조성 목적’으로 이용률이 86%이다. 그런데 이 요소는 밝혀진 활자 종수가 7종이고 그 중 이 요소를 명칭에 이용한 활자 종수는 6종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용률 100%를 보인 요소들의 밝혀진 활자 종수가 1-5종인 것에 비해 상대적

90) ①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 壬辰倭亂 以後의 金屬活字를 中心으로 (坤), 앞에서 든 글, p. 111.

②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 壬辰倭亂 以後의 木活字를 中心으로 (I), 앞에서 든 글, p. 121.

으로 밝혀진 활자 종수의 절대 수치가 큰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적으로는 이 요소의 선호도가 이용률 100%를 보인 요소들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외 50%의 이용률이 넘는 것으로 '재료', '조성자' 및 '모방행위를 나타내는 '倣'자'가 있다. 이들 중 '조성자'는 중복 집계된 횟수를 고려한다면 실제적으로는 더 낮은 비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머지, '크기', '서체', '대략적인 조성 시기', '인본의 서명' 및 '인본의 종류' 등은 각각 10-30%의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 요소들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대체로 저조한 이용률을 보였던 요소들이다.

IV. 표준 활자명의 선정

Ⅲ.에서 기존의 활자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활자에 대해 명명하거나 활자명을 사용할 때 명명자 또는 사용자가 어떤 요소를 더 선호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경향을 파악해 보았다. 이 분석의 결과와 필자가 앞서 발표한 논문들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표준 활자명들을 선정해보고자 한다.

선정하는 방식은 선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밝히는 방법과 선정되어서는 안될 당위성을 밝히는 방법, 그리고 이 양자를 병행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양자를 병행하는 방법이 가장 치밀한 방법이겠으나, 지면의 제약도 있고 널리 알려진 사실을 장황스럽게 기술하는 것도 오히려 독자들을 번거롭게 할 뿐이라 생각되어 기본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밝히는 방법을 채택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선정되어서는 안될 당위성을 밝히는 방법을 병행하겠다.

1. 文繼朴木活字

이 활자의 명칭이 처음으로 언급된 곳은 1974년에 발표된 尹炳泰의 “耶蘇三字經大字考”란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활자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筆者. 未發表原稿”⁹¹⁾라는 주를 달고 ‘文繼朴木活字’라는 활자명만 사용하였다.⁹²⁾ 그 후 나온 그의 석사학위논문에서는 활자의 존재에 대한 간단한 언급만 있었고,⁹³⁾ 정식으로 자세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은 3년 후인 1977년에 발표한 “「文繼朴木活字」考：嶺南地方活字考 其一”⁹⁴⁾에

91) 尹炳泰, 耶蘇三字經大字考, 앞에서 든 글, p. 29, 주62).

92) 같은 글, p. 29.

93) 尹炳泰, 朝鮮朝 大型活字考, 같은 글, p. 76.

서이다. 이 논문에서 尹炳泰는 “鄭造의 跋에 나타난 記錄을 보아, 이 活字를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은 文繼朴이므로, 그를 紀念하는 뜻에서도 이 活字의 이름을 文繼朴木活字로 命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명명의 뜻을 밝혔다. 그 후 尹炳泰가 개명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활자명에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명명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文繼朴木活字’를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한다.

2. 羅州木活字

이 활자의 명칭도 역시 文繼朴木活字와 마찬가지로 1974년에 발표된 尹炳泰의 “耶蘇三字經大字考”란 논문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또한 활자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筆者, 未發表原稿”⁹⁵⁾라는 주를 단 것까지 文繼朴木活字의 경우와 같다. 당시 사용한 명칭은 ‘羅州牧木活字’였다. 그런데 이듬해에 이 활자에 대한 자세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활자명을 『薛文清公讀書錄』의 인출기에서 ‘羅州牧活字’만을 따서 명명하였다.⁹⁶⁾ 그리고 그 후 1992년에 발표한 그의 저서에서는 “羅州에서 만든 木活字로 訓練都監에서 造成하지 아니한, 즉 “訓練都監字”가 아니라는 강한 印象을 준다는 長點도 있을 것 같다”⁹⁷⁾는 이유를 들면서 ‘羅州木活字’로 다시 명명하였다.⁹⁸⁾ 따라서 이 활자의 명칭은 명명자가 개명 의사를 존중하여 ‘羅州木活字’를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한다.

3. 前期校書館筆書體字

이 활자를 가리키는 옛 기록으로는 현종 2년(1661)에 이 활자로 찍은 『經國大典』의 간기에 나타나는 ‘芸閣鑄字’가 있다.⁹⁹⁾ 그런데 목활자인 이 활자를 가리켜 ‘鑄字’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鑄字’는 활자와 상통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 같다. 결국 ‘芸閣鑄字’는 芸閣活字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芸閣 즉 校書館에서 만든 활자는 이 활자 외에도 前期校書館印書體字 등 여러 종류의 활자가 알려져 있으므로 ‘芸閣鑄字’처럼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명칭은 특정 활자명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후대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이 활자가 언급된 것은 1955년에 金斗鍾에 의해서인데, 당시 명명의 의사표현 없이 “다른 活字와 區別하기 爲하여 字體의 形을 그대로 表現한”¹⁰⁰⁾ ‘行

94) 尹炳泰, “「文繼朴 木活字」考 : 嶺南地方 活字考 其一, 앞에서 든 글, pp. 195-209.

95) 尹炳泰, 耶蘇三字經大字考, 앞에서 든 글, p. 29, 주64).

96) 尹炳泰, 羅州牧活字”攷, 앞에서 든 글, p. 67.

97) 尹炳泰, 『朝鮮後期の 活字와 冊』, 앞에서 든 책, p. 71.

98) 같은 책, p. 71.

99) 崔恒 等受命編, 『經國大典』, 前期校書館筆書體字本. 芸閣, 顯宗 2년(1661). 刊記.

100) 金斗鍾, “李氏朝鮮의 後期活字의 改鑄와 潛谷, 金墳先生三代(子에 佐明 孫에 錫胄)의 貢獻”, 앞에서

書體木活字'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¹⁰¹⁾ 그런데 이 명칭 역시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특정 활자명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된다. 金斗鍾 자신도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다른 활자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字體 그대로 표현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특정 활자명으로는 부적절함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¹⁰²⁾

이처럼 이 활자는 특정 명명자 없이 Ⅱ.3.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명칭으로 불려져 왔다. 따라서 이 활자의 명칭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활자의 여러 명칭들 중에는 '前期校書館筆書體字'라는 명칭이 있다. 또한 IV.6.에서 명칭을 선정할 활자의 여러 명칭들 중에는 '後期校書館筆書體字'라는 명칭이 있다. 이 활자와 IV.6.에서 다룬 활자는 '校書館筆書體字'라는 계열 활자로 취급되고 있는 활자이다. 필자는 앞서 발표한 논고에서¹⁰³⁾ 이 두 활자와 매우 유사한 前期校書館印書體字와 後期校書館印書體字에 대하여 다른 바가 있다. 역시 '校書館印書體字'라는 계열 활자로 취급되어 온 활자이다. 두 그룹이 다 계열 활자로 묶일 수 있고, 校書館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각각 전기와 후기라는 주·조성 시기로 구분되어 있다. 다만 차이점은 인서체와 필서체라는 서체의 차이뿐이다. 따라서 활자명 선정에 있어서 이 두 그룹을 서로 관련지어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필자는 앞서 발표한 논고에서 前期校書館印書體字와 後期校書館印書體字의 명칭을 선정할 때 계열 활자임을 고려하고, 校書館이 정식 명칭인 점, 기타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활자명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여 두 명칭을 선정하였다.¹⁰⁴⁾ 따라서 위의 두 활자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이 활자와 IV.6.에서 다룬 활자에 대한 명칭을 선정하는데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선정된 활자명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기억을 돕는 이점이 생기며, 동시에 계열 활자에 속한 활자들 간의 동질성은 물론, 관련 있는 계열 활자들 간의 동질성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이 활자의 표준 활자명으로는 '前期校書館筆書體字'를 선정한다.

4. 仁祖實錄字

앞서 밝혔듯이 지금까지 이 활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활자명은 '實錄字'와 '仁祖實錄字' 둘 뿐이다. 이 중 '實錄字'는 특정 활자명으로는 부적합하다. 그 동안의 연

든 글, p. 148.

101) 같은 글, 같은 쪽.

102) ① 金斗鍾, 近世朝鮮後期活字印本에 관한 綜合的考察, 앞에서 든 글, p. 15.

②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74. p. 301.

③ 金斗鍾, 『韓國古印刷文化史』, 서울: 三星美術文化財團, 1980(三星文化文庫 148). p. 159.

103) 윤상기, 韓國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壬辰倭亂以後의 金屬活字를 中心으로 (乾), 앞에서 든 글, pp. 297-334.

104) 같은 글, pp. 328-331.

구를 통하여 과거 實錄字로 총칭하던 활자들은 이미 後期實錄字, 宣祖實錄字, 仁祖實錄字, 孝宗實錄字, 顯宗實錄字 등으로 구분 지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에 이르러서 實錄字는 이들 활자들을 총칭하는 즉 실록자계 활자와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실록자계 활자들이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경우, 後期實錄字만 제외하고는 모두 특정 왕조의 실록이 명칭에 이용되는 동일한 형식을 갖추게 된다.¹⁰⁵⁾ 이처럼 동일한 형식을 갖추는 것은 계열 활자에 속하는 활자들에 있어서는 동질성을 갖게 하고, 또 조기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리하여 이 활자의 표준 활자명으로는 '仁祖實錄字'를 선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5. 孝宗實錄字

앞에서 다룬 仁祖實錄字와 매우 유사한 경우로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활자이다. 仁祖實錄字의 선정 이유와 마찬가지로 '孝宗實錄字'를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한다.

6. 後期校書館筆書體字

앞에서 다룬 前期校書館印書體字와 매우 유사한 경우로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활자이다. 자세한 이유는 IV.3.을 참조하기 바라면서 '後期校書館筆書體字'를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한다.

7. 觀象監 書名大字

이 활자를 처음으로 찾아낸 尹炳泰가 사용한 '觀象監 書名大字'라는 명칭뿐이다. 큰 활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이 활자명을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한다.

8. 經書正音字

이 활자를 찾아낸 尹炳泰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면서 '經書正音字'로 부를 것을 제안했다.

105) 後期實錄字가 기타 실록자계 활자들과 같은 형식의 활자명을 취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필자가 앞서 발표한 논문(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 壬辰倭亂 以後의 木活字를 中心으로 (I), 앞에서 든 글, pp. 125-127)을 참조하기 바란다.

첫째, 經書正音이라는 名稱은 《論語正音》 등의 事實上 綜合書名으로, 《通文館志》에서 이미 使用된 바 있고, 둘째, 經書正音을 이루고 있는 各正音을 찍은 以外에는 다른 印出本이 알려지지 않았고, 셋째, 이 活字의 造成이 始作된 甲寅이라는 干支를 採擇하면, 初鑄甲寅字라는 鑄字와 混同할 가능성이 있으며, 넷째, 이 活字가 甲寅字體의 活字로서, 戊申字를 模倣하였다하여, 倣戊申字體木活字라고 부르고 싶으나 倣戊申字體木活字는 事實上 따로 있으며, 다섯째, 司譯院이나 그 略稱인 譯院을 붙여 (司)譯院活字라 하고 싶으나, 이 司譯院에서 造成된 活字에는 倣諺大字 등 여러가지가 있을 뿐 아니라, 아직 未發表된 여러가지 活字가 더 存在하므로 不適當하다는 點을 들고 싶다.¹⁰⁶⁾

이 활자를 처음 소개한 논문에서는 가칭을 전제로 했지만,¹⁰⁷⁾ 그 후의 저서에서는 ‘가칭’이라는 용어를 제외하였다.¹⁰⁸⁾ 따라서 사실상 명명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 후 尹炳泰가 개명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활자명에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명명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文繼朴木活字’를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한다.

9. 倣洪武正韻大字

이 활자는 1969년에 白麟이 처음으로 찾아내 가칭 ‘綱目大字’라고 불렀던 활자이다.¹⁰⁹⁾ 아마도 『資治通鑑綱目續編』의 綱에 해당하는 본문의 큰 자를 찍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칭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후 『易學啓蒙要解』와 『易學啓蒙集箋』 등 『資治通鑑綱目續編』에 앞서 이 활자가 사용된 인본들을 들면서 ‘綱目大字’란 명칭의 부적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¹¹⁰⁾ 그러나 이 지적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정조의 ‘資治通鑑綱目續編親撰義例’에 의하면 이 활자를 만든 목적은 『資治通鑑綱目續編』의 綱의 큰 자를 찍기 위한 데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¹¹¹⁾ 그리고 『易學啓蒙要解』와 『易學啓蒙集箋』 등의 서문에 이 활자가 먼저 사용된 것은 단지 『資治通鑑綱目續編』의 오류 정정이 그 방대한 권질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리면서, 그 사이에 앞의 책들이 먼저 완성되어 인출에 이

106) 尹炳泰, 『朝鮮後期の 活字와 冊』, 앞에서 든 책, p. 133.

동일한 내용의 글이 이 활자를 처음 발표한 논문(尹炳泰, “經書正音字攷”, 앞에서 든 글, p. 23)에도 있으나, 약간의 오자가 있으므로 오자가 수정된 최근의 저서에 있는 글로 대신했다.

107) 尹炳泰, 經書正音字攷, 앞에서 든 글, p. 23.

108) 尹炳泰, 『朝鮮後期の 活字와 冊』, 앞에서 든 책, p. 133.

109) 白麟, 朝鮮後期 活字本의 形態書誌學的 研究(下): 宣祖25~隆熙4년 사이의 奎章閣所藏圖書를 中心으로, 앞에서 든 글, p. 147.

110) 尹炳泰, 『朝鮮朝活字考: 大型活字』, 서울: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 1976(延世大學校 圖書館學叢書, 第18輯), pp. 102-107.

111) ‘…余(世孫)其與有幸乎 遂使諸僚廣蒐房引 勸訂訛謬 每一編奏 余復取以裁定 凡例則悉遵訓義 事實則溯考本史 閱曆月始完 乃倣洪武正韻字 大其劃 印其綱 而目則壬辰銅字印行’ 奎章閣 編, 『羣書標記』, 御定 1. 資治通鑑綱目續編親撰義例.

활자를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활자의 명명에 있어서, 최초의 이용보다는 조성 목적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소라 생각된다. 이 명칭이 부적당한 이유로는 오히려 ‘綱目’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포괄성 때문에 ‘綱目’을 곧 바로 『資治通鑑綱目續編』과 연결 지어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과 ‘綱目大字’가 세종 18년(1436)에 주조한 丙辰字의 異名으로 쓰인 적이 있어서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점들을 들고 싶다.

한편 처음에 거론한 지적과 동시에 이 활자를 “壬辰字와 함께 쓰이기 시작하였고, 또 쓰고 있었으므로 壬辰序文大字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¹¹²⁾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이 제안 역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활자의 조성 목적이 『資治通鑑綱目續編』의 綱의 큰 자를 찍기 위한 데 있으며, 壬辰字와 함께 사용되기는 했지만 서문만 찍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적당한 느낌을 준다 하겠다.

그 다음으로 사용된 활자명은 ‘倣洪武正韻字’인데, 천혜봉이 1976년에 간행한 그의 저서¹¹³⁾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저서에서 “文獻에 明示된 字本에 따라 우선 ‘倣洪武正韻字’로 일컬어 두기로 한다”¹¹⁴⁾고 하였으므로 ‘資治通鑑綱目續編親撰義例’의 기록에 보이는 자본을 따서 가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그러나 천혜봉이 그 후 발표한 글들을 조사해보면, 1990년부터 ‘倣洪武正韻大字’라는 수정된 활자명을 쓰기 시작했는데,¹¹⁵⁾ 1991년에는 앞서의 ‘倣洪武正韻字’와 병행해 사용하였다.¹¹⁶⁾ 그러나 그 후의 저서에서는 완전히 ‘倣洪武正韻大字’ 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⁷⁾ 그리고 이 명칭을 채택한 이유를 “이 활자는 본시 『綱目續編』의 본문 대자를 찍기 위한 목적으로 홍무정운자를 모방하여 크게 만든 것이기 때문”¹¹⁸⁾이라고 하였다. 모방한 글자를 요소로 채택하여 명명했다가 후에 크기라는 요소를 덧붙인 명칭으로 개명한 것으로 간주하면 되겠다. 명명자가 개명한 것을 존중하고 개명된 ‘倣洪武正韻大字’에 중요한 하자는 없어 보이므로 이 명칭을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한다.

112) 尹炳泰, 朝鮮朝 大型活字考, 앞에서 든 글, p. 107.

113) 千惠鳳, 『韓國古印刷史』, 앞에서 든 책.

114) 같은 책, p. 110.

115)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앞에서 든 책.

116) ‘倣洪武正韻字’를 사용한 경우는 아래의 3종의 자료에서 조사되었다.

① 千惠鳳, 『韓國 書誌學』, 앞에서 든 책.

② 千惠鳳, 목활자 木活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8. 城南市 : 同研究院, 1991.

③ 千惠鳳, 책 冊,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21. 城南市 : 同研究, 1991. 倣洪武正韻大字’를 사용한 경우는 아래의 2종의 자료에서 조사되었다.

① 千惠鳳, 『韓國 書誌學』, 앞에서 든 책.

② 千惠鳳·許英仙, 인쇄 印刷,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18. 城南市 : 同研究院, 1991.

117) ① 천혜봉, 『한국목활자본』, 앞에서 든 책.

② 千惠鳳, 『韓國 書誌學』, 개정판, 앞에서 든 책.

118) 千惠鳳, 『韓國 書誌學』, 앞에서 든 책. p. 271.

10. 剡溪門人錄大字

이 활자에 대한 명칭은 이 활자를 처음 발굴하여 소개한 尹炳泰가 가칭한 ‘剡溪門人錄大字’ 뿐이다. 명명자는 비록 이 활자의 이름을 “임시로 剡溪門人錄大字라 부르고, 다음에 자세한 사실이 알려지면 고쳐 부르는 것이 좋겠다”¹¹⁹⁾고 하였지만, 그 후 이 활자에 대한 후속 연구도 없고 사용된 다른 명칭도 없으므로 이 명칭을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한다.

V. 나오면서

이 연구는 필자가 계획·진행중인 한국 고활자명에 대한 일련의 연구 중 하나로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성된 목활자들 중 앞서 발표한 9종의 목활자들에 이어 조성된 10종의 목활자들의 기본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 기술한 것들을 요약하면, 먼저 대상 활자들에 대하여 각각의 간단한 내력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었다. 내력을 살펴본 것은 기존의 활자명들에서 이용한 요소가 정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어서 각 문헌을 통하여 기존의 활자명들을 가능한 한 많이 조사하여 각 활자별로 나열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활자명에 이용된 요소들을 분석하여 기존의 활자명들이 어떤 요소들을 선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선호도는 새로 발견된 활자에 대하여 명명하거나 기존의 활자에 대해 다시 명명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어서 필자 나름의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총 10종의 활자들에 대해 ‘文繼朴木活字’, ‘羅州木活字’, ‘前期校書館筆書體字’, ‘仁祖實錄字’, ‘孝宗實錄字’, ‘後期校書館筆書體字’, ‘觀象監書名大字’, ‘經書正音字’, ‘倣洪武正韻大字’, ‘剡溪門人錄大字’를 각각 표준 활자명으로 선정하였다.

표준 활자명의 선정 과정에서 적용된 기준들은 필자가 앞서 발표한 논문들에서 이미 제시하였던 것들뿐이기 때문에 새로이 다루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될 이 일련의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선학들의 호된 질정을 기대한다.

119) 尹炳泰, 朝鮮朝 大型活字考, 앞에서 든 글, p. 110.

참고문헌

- 『서울대학교 開校 20周年記念 貴重圖書展示會 展示目錄』. [서울 : 同館, 1966].
- 『淸州古印刷博物館』. 충북 : 忠淸北道, 1991.
- 姜順愛. “奎章閣의 圖書刊印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5·6合輯(1990). pp. 235-288.
- 國會圖書館司書局參考書誌課 編.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68.
- 金斗鍾. “近世朝鮮後期活字印本에 관한 綜合的考察”, 《大東文化研究》 第4輯(1967. 7). pp. 1-74.
- 金斗鍾. “李氏朝鮮의 後期活字의 改鑄와 潛谷, 金堉先生三代(子에 佐明 孫에 錫胄)의 貢獻”, 《庸齋白樂濬博士還甲紀念 國學論叢》. [서울] : 思想界社, 1955. pp. 143-170.
-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 探求堂, 1974.
- 金斗鍾. 『韓國古印刷文化史』. 서울 : 三星美術文化財團, 1980(三星文化文庫 148).
- 金錫淳. “韓國의 古活字와 그 印本”, 《건대신문》 第183號(1964. 9. 18(金)). p. 2.
- 金秀亨. “訓練都監字本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科, 1978. 12.
- 金元龍. “李朝後期の 鑄字印刷”, 《鄉土 서울》 第7號(1959. 12). pp. 7-66.
- 白麟. “朝鮮後期 活字本の 形態書誌學的 研究(上) : 宣祖25~隆熙4年 사이의 奎章閣所藏圖書를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3號(1969. 3). pp. 123-160, 4.
- 白麟. “朝鮮後期活字本の 形態書誌學的 研究(下) : 宣祖25~隆熙4年 사이의 奎章閣所藏圖書를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4號(1969. 6). pp. 133-166.
- 白麟. 『韓國圖書館史研究』.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69(韓國圖書館學叢書, 3).
- 孫寶基. “韓國印刷技術史”,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韓國文化史大系, III : 科學技術史」. 서울 : 同研究所 出版部, 1968.
- 손보기. 『금속활자와 인쇄술』.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7(교양 국사 총서·21).
- 손보기. 『새판 한국의 고활자』. 서울 : 寶晉齋, 1982.
- 손보기. 『세종 시대의 인쇄출판』. 서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6(세종문화문고).
- 손보기. 『한국의 고활자』. 서울 : 寶晉齋, 1971.
- 安美璟. “朝鮮朝 譯學書의 版種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5·6合輯(1990). pp. 603-634.
- 安春根. “甲寅字鑄字事實補疑”, 《書誌學研究》 第2輯(1987). pp. 109-121.
- 尹炳泰. ““羅州牧活字”攷”, 《도서관》 第30卷, 第1號(1975. 1). pp. 65-67.
- 尹炳泰. ““洛東契活字”考”, 《도서관》 第31卷, 第3號(1976. 3). pp. 43-51.
- 尹炳泰. ““文繼朴 木活字”考 : 嶺南地方 活字考 其一”, 《圖書館學論集》 第4輯(1977). pp. 195-209.
- 尹炳泰. “經書正音字攷”, 《도협월보》 15, no. 11(1974. 11). pp. 20-24.
- 尹炳泰. “奎章閣 所藏 活字 字譜考”, 《奎章閣》 11(1988. 12). pp. 49-65.

- 尹炳泰. “奎章閣圖書와 韓國活字印刷史 研究 : 그 研究史와 史料를 中心으로”, 《奎章閣》 1(1976. 11). pp. 67-90.
- 尹炳泰. “耶蘇三字經大字考”, 《도서관》 第29卷, 第10號(1974. 12). pp. 21-32.
- 尹炳泰. “丁酉字의 鑄造와 「奎章字藪」”, (延世大學校 圖書館學科)《圖書館學會誌》 第4號 (1979. 3). pp. 151-169.
- 尹炳泰. “朝鮮時代 活字 使用考”, 《奎章閣》 2(1978. 12). pp. 57-77.
- 尹炳泰. “朝鮮朝 大型活字考”, 碩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 大學院 圖書館學科, 1975. 12.
- 尹炳泰. 『朝鮮朝活字考 : 大型活字』. 서울 :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76(연세대학교 도서관 학총서, 제18집).
- 尹炳泰. 『朝鮮後期の 活字와 冊』. 서울 : 범우사, 1992.
-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 壬辰倭亂 以前の 金屬活字를 中心으로”, 《東義論集》 第24集(1996. 9), 人文·社會科學篇. pp. 201-255.
-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 壬辰倭亂 以前の 木活字를 中心으로”, 《東義論集》 第28集(1998. 2), 人文·社會科學篇. pp. 545-587.
-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 壬辰倭亂 以後의 金屬活字를 中心으로 (乾)”, 《書誌學 研究》 第16輯(1998. 12). pp. 297-334.
-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 壬辰倭亂 以後의 金屬活字를 中心으로 (坤)”, 《書誌學 報》 第22號(1998. 12). pp. 89-122.
- 윤상기. “韓國 古活字名에 대한 研究 : 壬辰倭亂 以後의 木活字를 中心으로 (I)”, 《書誌學 研究》, 第19輯(2000. 6). pp. 101-129.
- 李潭周 編著. 『韓國古活字集』. [서울], 1967.
- 藏書閣 編. 『韓國古活字見本帖』. 서울 : 藏書閣, 1973.
- 諸洪圭 編著. 『韓國書誌學辭典』. 서울 : 景仁文化社, 1974.
- 千惠鳳. “목활자 木活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8. 城南市 : 同 研究院, 1991.
- 千惠鳳. “실록자 實錄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14. 城南市 : 同 研究院, 1991.
- 千惠鳳. “책 冊”,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21. 城南市 : 同研究, 1991.
- 千惠鳳. 『韓國 書誌學』, 개정판. 서울 : 민음사, 1997.
- 千惠鳳. 『韓國 書誌學』. 서울 : 민음사, 1991(대우학술총서·인문사회과학 58).
- 千惠鳳. 『韓國古印刷史』. [서울] : 韓國圖書館學研究會, 1976.
- 천혜봉. 『한국목활자본』. 서울 : 범우사, 1993.
- 千惠鳳. 『韓國書誌學研究 : 古山千惠鳳教授定年紀念選集』. 서울 : 삼성출판사, 1991.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 汎友社, 1990.

千惠鳳·許英仙. “인쇄 印刷”,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18. 城南市
: 同研究院, 1991.

千惠鳳·洪佑東. “활자 活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25. 城南市
: 同研究院, 1991.